

[ 사회 ]

# 광주 특급호텔 건립업체에 공동주택 사업권 '논란'

## 市, 적자 보전책 담은 도시계획 절차 공고

광주시가 도시 기반 인프라 가운데 최대 숙원인 특급호텔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자가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병행토록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광주지역에서의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 지금까지 수차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엔 호텔과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이라는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고육책을 쓰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특급호텔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서구 마곡·치평동 일원 4만㎡의 제1·2종 일반주거 및 자연·생 산녹지를 준주거 용지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이는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AMJ개발 측이 부지에 대한 보상을 거의 마무리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는 대로 의회승인과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10여 년 전 서구 광전동 전남중 이전 부지에 특급호텔을 건립하려 했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찾지 못했으며, 최근 들어 지난 2005년 2월 옛 광주고속 부지에 추진되던 사업도 같은 이유로 투자자의 외자 유입이 되지 않아 실패했다. 또 2005년 6월 중앙공원 일대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되는 등 수차례의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시는 투자자들이 광주에 특급호텔 건립을 꺼리는 이유로 제시하는 '낮은 사업성'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금까지 특급호텔을 추진할 때마다 호텔과 함께 주상복합상가 신축이나 카지

노·면세점 등의 시설을 병행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기준에 거론됐던 부지를 제외한 적합한 부지로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을 선정, 특급호텔 추진과 함께 호텔 경영 및 적자 보전책으로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물색했다.

일반적으로 특급호텔 추진시에는 주변 부지에 30~40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이나 소풍센터가 들어서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는 비행고도제한구역이어서 10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공동주택을 병행하게 됐다.

광주시와 AMJ건설사는 지난해 8월 200실 내외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 MOU를 체결했다. AMJ건설사는 특급호텔과 함께 200가구 내외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에서 올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급호텔(301실)은 소풍센터(25층)·오피스텔 2동(32층, 43층) 등 3개 시설과 병행해 시행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신조어에 비친 취업난

'NG족' '직테크' '월급고개'...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고 직장 내 생존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 신조어·유행어가 등장하고 있다. 취업 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학생과 직장인 사이에 회자됐던 신조어를 모아 8일 발표했다.

◇ 취업, '여전히 어렵네'=대 학가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

들, 사기업 취업자는 '사람의 아들',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로 불린다. 국책은행은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7개 국책은행이 한꺼번에 공채시험을 치른 지난해 10월22일은 'A매치 데이'로 일컬어졌다.

◇ 직장인, '갈수록 팍팍해'= 새벽부터 운동이나 외국어학원에 다니는 '새벽닭족', 점심시간

### NG족-취업 될 때까지 졸업 늦춰 직테크-경력 쌓으며 몸값 높이기

을 늦추는 'NG'(No Graduation)족이 증가했다.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조기 졸업생'이 됐고 '대6생' '대7생'도 생겨났다.

'3대 입시 클러스터'는 고교생 때는 대치동 입시 학원가에 몰렸다가 대학시절에는 신림동 고시촌, 졸업한 뒤에는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를 전전하는 현실을 빗댄 자조 섞인 말이다. 안정적인 공기업을 선호하는 취업자를 '신의 아들'을 소개하며 공부에 힘쓰는 '점심시간족'도 늘어났다. 경력 쌓기로 몸값을 높인 뒤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직테크' 전략도 필수가 됐다.

쌍년준이라 결혼식이 많았던 지난해에는 경조사비 지출이 늘면서 '월급고개'를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많았다. 지난해 월급은 떨어지고 이번 달 월급날은 아직 오지 않아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기에 빗댄 말이다. /연광뉴스

### 아침·지역 '영하 추위' 1월 9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겠다.

|    |      |        |
|----|------|--------|
| 광주 | 구름조금 | -3~-6℃ |
| 목포 | 구름조금 | -2~-5℃ |
| 포항 | 구름조금 | -1~-6℃ |
| 부산 | 구름조금 | -1~-7℃ |
| 대구 | 구름조금 | -6~-6℃ |
| 충주 | 구름조금 | -4~-6℃ |
| 전주 | 구름조금 | -4~-7℃ |
| 춘천 | 구름조금 | -6~-6℃ |
| 강릉 | 구름조금 | -4~-7℃ |
| 인천 | 구름조금 | -3~-5℃ |
| 청주 | 구름조금 | -3~-6℃ |
| 대전 | 구름조금 | -4~-6℃ |
| 전주 | 구름조금 | -6~-5℃ |
| 목포 | 구름조금 | -4~-5℃ |
| 안주 | 구름조금 | -4~-5℃ |
| 제주 | 구름조금 | -4~-5℃ |

서울 07:41 해질 17:37 달뜨기 23:09 달지기 10:57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 날짜    | 10(수) | 11(목) | 12(금) | 13(토) | 14(일) | 15(월)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3/6  | -3/6  | -3/4  | -4/6  | -2/7  | -1/8  |

# 단속카메라 앞 감속 안통한다

## '구간단속' 도입...평균 속도로 과속 적발

앞으로 단속카메라를 피해 과속을 하는 경우도 적발된다.

경찰청은 8일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 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으나,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

서의 과속도 적발된다는 것이다.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의 과속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간단속=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 경찰청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출퇴근 터널 구간에서 구간단속 장비 시험을 해 왔다.

단일 양식으로 통합된다. 5가지 민원 서류의 발급신청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23만9천여 건이다.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광뉴스



흥역 예방접종  
광주 서구보건소가 8일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흥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만 12~15개월 때 1차 흥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만 4~6세 때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안순일 교육감, 실시구시·하이부동 강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교사 성어 등을 인용해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행정운영 방침을 밝혀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안 교육감은 지난해 11월7일 취임사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역지사지'는 교육 가족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결속과 화합의 토대 위에 인화단결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실사구시'는 교육행정을 알뜰하고 실속있게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성과위주의 전성행정이

나 과시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간부회의 때에는 '절차탁마'(切磋琢磨, 학문이나 덕행 등을 배우고 닦는다)의 자세로 근무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8일 간부회의에서는 '하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배우라고 주문했다.

안 교육감은 "논어에 '군자(君子) 하이부동, 소인(小人) 동이불화(同而不和)', 즉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저소득층 주민 위한 '나눔드리 책방' 확대

저소득층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나눔드리 책방'이 올해 확대 개설된다.

8일 광주사적도서관(관리장 류신영)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나무엑터스·극장 콜롬버스시네마·메가박스 등이 '나눔드리 책방'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영화 무료관람권 6천 400장을 제공키로 했다.

사적도서관 측은 돌려보고 싶은 책

두 권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영화 관람권 1장을 제공하며, 이렇게 모인 1만2천여 권의 도서는 4곳의 새로운 '나눔드리 책방'에 비치된다. 사적도서관은 도서관과의 거리 및 저소득층 수요 등을 고려해 '나눔드리 책방' 신설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사적도서관이 개설한 '나눔드리 책방'은 광주 엠마누엘교회·무지개지역아동센터·송광사회복지관 등 세 곳이다. 문의 062-671-0568.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謹賀新年

#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기탄교육 1월 이벤트**

- ▶ **1월 1주 (1월 1~7일)** : 올레비디오, 주니어영어회화, 영문법, 독해력, 영어듣기, 영어회화, 영어듣기, 영어회화, 영어듣기, 영어회화
- ▶ **1월 2주 (1월 8~14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12주 총 16만 70,000원
- ▶ **1월 3주 (1월 15~21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 ▶ **1월 4주 (1월 22~28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 ▶ **1월 5주 (1월 29~2월 4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 ▶ **1월 6주 (2월 5~11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 ▶ **1월 7주 (2월 12~18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 ▶ **1월 8주 (2월 19~25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 ▶ **1월 9주 (2월 26~3월 1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 ▶ **1월 10주 (3월 2~8일)** : 2원영어회화 특별대행사 - 50만 85,000원

착하고, 문뜩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엄마애겐 공부 1등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마음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 바로 엄마니까요.  
엄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기탄회원이 되세요. 엄마선생님이 되세요!"**  
기탄교육에서 무료 체험강좌를 수강하시는 교육청보육, 학습지, 사  
비, 영어회화, 독해력, 영어회화, 영어듣기, 영어회화, 영어듣기, 영어회화  
드리는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탄교육입니다.

**gitan.co.kr** | 기탄수학 | 사교육수학 | 한글 | 새국어 | 영어 | 한자 | 중국어 | 금수원자질역력기 | 기탄  
문의: 02-536-1007 | 02-536-1008 | 02-536-1009 | 02-536-1010 | 02-536-1011 | 02-536-1012 | 02-536-1013

▶ 기탄교육지는 전국 유명선생과 합동마케팅서 구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2)536-1007